

# 더 낮아진 내년 코스피 전망치... 코로나 기저효과 사라진다

위드코로나·메타버스 등 투자 기회 예상 전망치 하단 2610~2950p  
국내 기업 이익증가율 둔화 예상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2022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면서다. 위드코로나, 메타버스(Metaverse·초월 가상세계), 친환경 등을 투자 기회로 꼽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3개 증권사가 예상한 코스피 지수 상단은 3150~3600포인트, 하단은 2610~2950포인트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 상단 전망치의 경우 KB증권이 3600으로 가장 높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3150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다. 하단 전망치의 경우 키움증권이 2950으로 가장 높게, 대신증권이 2610으로 가장 낮게 잡았다.

◆공급망 병목현상·인플레이션 우려 여전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산업 생산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 소비자물

2022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

증권사	코스피 하단	코스피 상단
KTB투자증권	2850	3450
키움증권	2950	3450
삼성증권	2800	3400
신한금융투자	2850	3500
DB금융투자	2650	3200
NH투자증권	2800	3400
이베스트투자증권	2740	3150
한국투자증권	2800	3400
KB증권	-	3600
교보증권	2850	3450
대신증권	2610	3330
유진투자증권	2900	3400
유안타증권	2750	3350

자료/각사

/유투이미지

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기준 6.2%로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대로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 상승압력 확대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며, 달러 강세압력까지 자극하는 상황”이라며 “병목현상으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교역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선진국 경기 불

안 심리까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영업이익율 컨센서스는 유례없는 9%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이익 구조는 별다른 게 없는 제조업 중심”이라며 “게다가 내년은 억눌렸던 서비스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등밸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경기침체 이후 주식시장은 ‘유동성 팽배→긴축조정→반등밸리’의 패턴이 반복되며, 올해는 ‘긴축조정’이 진행된 해였다”며 “기업이익은 당초 예상(약 50%)보다도 훨씬 더 좋았지만 (약 100%) 긴축 우려가 시장을 억눌렀다. 2022년에는 ‘반등밸리’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주목해야할 업종은?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위드 코로나’로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은 업종, 친환경 업종, 메타버스 등을 투자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경제 개방이 재개되고, 재고 재축적이 진행되며 경기민감주 우위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익 피크아웃 논란이 있지만, 다수 업종의 매출액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민감주 내 반도체, 자동차, 은행, 유통, 항공을 추천한다”며 “또 장기 테마인 메타버스의 엔터·미디어, 인터넷과 환경 관련주, 낙폭과대 기회주인 바이오에도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도 주목

할 만한 이벤트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2007년 12월 17대 대선을 제외하면 대선 기간 전후로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이번 대선도 불평등이 중요 화두일 전망”이라며 “미국은 지난 작년 대선 기간 중 불평등 확대 책임을 빅테크, 플랫폼, 금융, 대형 온라인 소매기업으로 돌리는 모습이었다. 국내 대선에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된다면 관련 업종センチ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형 성장주’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중소기업 성장주 삼대장으로 콘텐츠(미디어·엔터·게임), 친환경(배터리·수소·원전 포함), 바이오를 꼽았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중소형 성장주”는 올해 하반기 이미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 이전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휴지기를 거친 후 다시 주도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2년 이익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이 희소할 때 성장주가 주목받는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수출 사상 최대 넘본다... 반도체 등 성장세

올해 수출 전년 대비 24.1% 증가  
선전 품목, 내년까지 이어질 듯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도 반도체 등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빠르게 반등하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한 6362억 달러, 수입은 29.5% 증가한 605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615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제품, 섬유,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올해 선전한 품목들의 좋은 업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는 D램 단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최신 중앙처리장치(CPU) 출시에 따른 대규모 서버 교체 수요, DDR5로의 D램 세대 전환, 견조한 시스템 반도체 초과수요 등으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2년 연속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4.0%), SSD(1.5%), 무선통신기기(2.0%) 등 주요 정보통신(ICT) 품목 수출도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제품(14.0%)과 석유화학(1.7%)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제품은 내년까지 단가

(2022년 수출입 전망)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1~10월 (실적)	연간 (예상)	
수출 (증가율)	5,125 (-5.5)	5,233 (26.0)	6,362 (24.1)	6,498 (2.1)
수입 (증가율)	4,676 (-7.1)	4,963 (29.6)	6,057 (29.5)	6,154 (1.6)
수지	449	270	305	344
무역규모	9,801	10,197	12,419	12,65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화학도 일회용품 수요와 ‘위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산업 정상화 등으로 합성수지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 스파티스 등 고부가가치형 의류용 원단을 중심으로 섬유(5.0%) 수출도 호조세를 예상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구조적인 여건으로 수출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9.0%)은 과잉 상승했던 제품단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부품(-1.0%)도 반도체 공급난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5.0%)은 팬데믹 전후 수주 감소 영향으로 내년에 인도 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가전(-8.0%)의 경우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홈 등이 보편화되며 삶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뉴라이프 가전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업황은 전반적으로 밝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년 동안 이어진 해외생산 확대 추세로 내년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선진국 경제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주요국 인플레이션 확대 등은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지적했다.

수입의 경우 국내 경기회복과 올해 하반기 수준의 국제유가 흐름, 견조하게 유지되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올해 대비 소폭 상승(1.6%)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대비 소폭 확대된 344억 달러로 예상했다.

무역협회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올해 우리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고 완만하지만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원자재 수급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협회도 정부 및 업계와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과기부,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제도적 환경 조성... 주된 내용  
기술력 확보 부분부터 단계적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왔던 우주개발 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용자한다.

또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

하고 지체상금을 완화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 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책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했다.

또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 근거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 권원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